



진안군 용담면 지사협, 취약계층 위한 밀반찬 지원

진안군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노기환, 민간위원장 문동일)는 30일 협의체 위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1분기 밀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사시사철 따뜻한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고령화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부 확인과 말벗 등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관내 80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취약계층 57세대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모아 황태미역국, 불고기, 파래무침 등 영양을 고려한 밀반찬을 직접 조리했으며, 준비된 반찬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달하고 안부 확인은 물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실태도 살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계화면,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교육

부안군 계화면(면장 김화순)은 지난 27일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자 80명 교육에 필요한 근무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일자리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및 교통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계화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되며 총 80명의 어르신이 7개 조로 나뉘어 관내 주요 도로변 정비 및 제조작업 등 쾌적한 계화면 만들기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활동이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영농철 소형농기계 무상수리 봉사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은 지난 17일~20일 3일간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영월, 입암, 소성 지역 조합원을 위한 소형농기계 무상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소형농기계 무상수리 봉사는 돌아오는 영농철을 맞아 사전에 점검 정비를 함으로써 농기계 고장 발생을 최소화해 조합원들의 적기영농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특히 현장 기술 교육을 통해 간단한 고장 및 농기계 청소 등 조합원 스스로 고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자가 정비수리능력도 높일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은행 목련회,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봉사

회원·자녀 40여명 참여... 편백나무 300주 심으며 환경보호 의미 더해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가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와 전북생명의숲(이사장 박해영)은 전주 건지산 전북대학교 학술림 일대에서 '2026 쓰담쓰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가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와 전북생명의숲(이사장 박해영)은 전주 건지산 전북대학교 학술림 일대에서 '2026 쓰담쓰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은행 여직원들로 구성된 목련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8일 '함께 심는 오늘, 더 푸른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회원들과 자녀들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도시숲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목련회 회원과 자녀 등 40여 명이 참여해 3~4년생 편백나무 300주를 직접 심었다. 참가자들은 식재한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앞으로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기로 약속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즐거운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참가자들은 1인당 1만원의 나무 구입 비용을 기부하며 환경보호 실천에 힘을 보탤다. 전북생명의숲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키는 뜻깊은 나무심기 행사에 함께해 준 목련회에 감사드린다"며 "도시 열섬 현상 완화와 녹색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전북은행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 목련회 회장은 "아이들이 직접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더욱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다"며 "올해에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와 전북생명의숲(이사장 박해영)은 전주 건지산 전북대학교 학술림 일대에서 '2026 쓰담쓰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완화와 녹색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전북은행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 목련회 회장은 "아이들이 직접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더욱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다"며 "올해에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정읍여성새일센터,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 2관왕 '쾌거'

우수기관·종사자 부문 수상

정읍시 인재양성과 소속 정읍여성새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여성새일하기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우수 기관 및 종사자 2개 분야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시상식은 전문 인력 양성, 여성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여성 취·창업률 증진을 위해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새일센터는 이번 포상에서 우수 기관(전년 대비 우수)과 우수 종사자(김지연 직업상담사)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 그동안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1대1 맞춤형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 취업 연계,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유관 기관·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단순 취업을 넘어 안정



정읍새일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직원 모두가 지역 특성에 맞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업 교육 훈련 고도화와 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상반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남원시는 30일, 2026년 상반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요 감사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5개 수행기관 회계담당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감사 지적사항 설명 △관련 법령 및 집행 기준 안내 △기관별 질의응답 △향후 협조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회계 운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수익계좌 및 공사 집행 절차 △후원금 관리 △사업계획 미반영 경비 집행 △부대경비 및 비품 구입 기준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의 예산 과목 구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기관별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남원시는 앞으로 수행기관과의 정기 협의, 업무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르신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노소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30일 불철 치안순수 증가에 대비하여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봄철 노소사기 및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재현 서장을 비롯한 각 과·계장 및 지역관서장이 참석, 최근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기능별 범죄 예방 활동 및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소사기 최신 시나리오 예방대책 △목표포관리제 추진 및 신속보고체계 구축 △노소범죄·봄 행락철 특별교통활동 △관계성 범죄 선제적 대응책 △계절별·시기별 다발 범죄 수사 및 예방활동 △지역관서별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는 관내 주유소에서 흡연 위반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남원소방서의 조치는 안전불감증을 바로잡고 대형 재난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법령은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 내 흡연 전면 금지 △시설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릴 표지 설치 의무화 △관계인이 일정 안전 기준을 갖춘 장소에 한해서 흡연 구역 지정 가능 △흡연 금지 규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증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호지지사 010-6645-9935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호지지사 010-6645-9935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